

2021 총회준비위원회 1차회의 회의록

작성 : 성현영

참석 : 가필현, 고민희, 김미선, 이경숙, 유형민, 이은자, 정승실, 김충기, 김진선, 성현영, 전강희

참고 : [회의안건지](#), [참석보고서](#), [회의녹화영상](#)

안건 1. 2020년 사업평가안 논의

- 2020년 사업보고 - 지부사업, 공동체텃밭 사업, 소모임활동, 회원행사, 도농교류사업, 회의 및 사무처 보고, 지구를 살리는 도시농부 캠페인 사업보고, 도시농업지원센터,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 학교텃밭, 송도석산텃밭, 기타사업, 교육사업총괄 등 자료와 함께 요약하여 보고함.
- 2020년 사업평가 - 목표1, 목표2, 목표3의 내용과 더불어 자체 평가, 이사 및 운영위원회에 나온 평가를 바탕으로 내용을 공유함.
- 이경숙 : 서구 연희동 세대공감텃밭 강사로 활동. 전문가과정 수료생께서 텃밭관리를 잘 해주심. 한평텃밭 28개를 한 가구 당 1곳씩 참여할 수 있게 함.(주민참여예산) 공동체활동과 텃밭교육을 함께 진행함. 마지막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을 잘 진행하지 못함. 올해에 다시 사업 진행할 예정. 운영진과 참여하시는 분들의 열정이 느껴짐.
- 김미선 : 사무국 식구들이 일이 많은 것 같음. 도와주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사무국과 지부가 각자 바쁜 해였던 것 같음. 지부 성과가 목표한 만큼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음. 기후위기 캠페인에 동참하려고 노력했으나 회원들의 인식도 부족한 것 같고, 어떻게 공유해야하는가 하는 부분이 숙제라고 생각함. 회원들과 기후위기 관련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코백 사용 등)을 이야기하고 그 의미를 열심히 전달함.
- 가필현 : 텃밭회원들과 기후위기 이야기를 잘 하지 못했다. 프로그램 진행하기에 바빴다. 단체활동을 통해서 보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관심있게 된 것 같음
- 이은자 : 남도농의 경우 남촌산단 산업단지 저지 대책위 모임을 함께함. 기후위기 문제와 맥락이 이어짐. 자체적인 활동을 위해 노력중, 인도농 사업과 별개로 남동구 마을만들기 사업에 도림, 서창, 만수르 텃밭 진행.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에 사무처 식구들이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됨. 남동도시농업네트워크는 인도농과의 연결고리가 약했다고 생각하나, 자생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됨. 지원이 필요할 때 요청하면 도움은 잘 받을 수 있었음.
- 정승실 : 부도농에서 함께하는 25명 중 14명 정도가 운영위원. 해바라기 심기, 퇴비만들기, 청소년 봉사텃밭 등 모두가 즐겁게 시작했으나 뒤로 갈수록 힘들어짐. 지구를 살리는 도시농부 관련 활동도 4월에 함. 청소년 대상 기후위기수업도 진행. 전체적으로 지구를

살리는 도시농부 활동은 열심히 한 자부심. 반려식물 나눔을 약 300개 정도.

공기정화내용과 QR코드삽입 등으로 반응이 좋았음. 청소년 봉사활동텃밭은 24차시 중 18차시만 진행함. 빗물저금통 만들기, 기후위기강의, 나무 등 자연물 활용. 강사진과 실무자가 나뉘어 약간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적도 있음. 구청과 재료구입 관련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았던 적이 있었음. / 인도농과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음. 부도농의 일에 집중하느라 인도농에 많이 신경을 못썼고, 일을 도맡아서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혼자 일한다는 느낌도 받음. 강사로 와준다는 느낌만 받고, 함께 운영한다는 느낌은 아니었음. / 김충기 - 운영 노하우나 문제해결의 방법 등에 대해 인도농에 협조를 요청하면 좋을 것. 사무국도 여유가 없어 살피지 못했고, 지부연석회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고민희 : 사무국이 바쁘기도 했지만 소통의 방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아쉬운 점은 누구와(대표, 처장님, 팀장) 함께 논의해야할 지 잘 모르겠다는 것. 올해에는 외부교육(지방 위탁사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좀더 내부(회원)에 집중하셨으면,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 중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연계할 수 있으면(ex 남촌동 옥상텃밭 조성) / 스배자 기후위기 활동(비닐, 노끈 사용 금지, 고기 없음) / 씨앗이음은 안정기, 의견도 잘 맞고 소통도 잘 됨, 100만원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이 딱 적당했던 것 같다. 올해는 회원을 추가로 모집할까 고민 중(10기 전문가과정, 주변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음) 모집방식은 고민 중
- 이경숙 : 회원들의 사정상 주기적으로 모여서 활동하기가 어렵다. 말벌로 인해 벌들이 죽음, 회의를 통해 지속할지 결정할 예정
- 유형민 : 사업의 확대, 실적을 낸 부분은 좋다.(외형의 확대), 지부활성화, 회원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보인다. 회원 지부교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을 투명화해야 할 것이다. 지부교부금 지원의 방식에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지부교부금을 회원사업비로 사용한다면?)
- 전강희 :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는 혼자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운영위에 지속적으로 결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활동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 김진선 : 지부의 자율성 보장과 간섭의 사이에서 오해와 배려
- 이은자 : 지부와 회원의 연결고리에 있어 사무처장님이 큰 역할을 함
- 김진선 : 지부교부금이 실제적으로 활용방식 고민, 두 팀장의 실질임금 보장

안건 2. 올해의 회원 추천

- 미추홀 : 안희숙 텃밭지기
- 스배자 : 한경래, 최정은, 장만석
- 씨앗이음 : 권위남
- 달달사 : 이경숙

- 훗날이, 부평 : 강영숙(3표) -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협력
- 부평 : 이은경 - 청소년 수업봉사, 운영위 적극적
- 남동 : 장미경 - 청소년 상상텃밭 활동

2차 총준위 : 2/1(월) 오후 7시